

를 一號 그 東窄 約 六m의 足石이 넘어 진 支石墓를 二號 또 그 東쪽에 支石墓의 蓋石같은 것이 있음을 確認할 수가 있었다. (이들 三號) 一號의 蓋石은 大略 不定長方形狀이며 長五·三m 幅四

· 一m 厚 九〇cm 全高는 二·三m 가량이 矣. 東쪽 것을 A 足石, 西쪽 것을 B 足石, 中間 것을 C 足石이라고 하면 (A) 足石 高 一·四m, 廣 二·六m (B) 足石 高 一·二五m 廣 二·八m 兩 足石 間 거리 즉 (C) 足石 廣 約 九五cm로 西北間을 向하였으며 入口엔 雜石들이 쌓여 있었다. 石室 長 二·六m 廣 一m 高 一·三m 이고 石質은 花崗石이다. 二號는 不定形 蓋石으로서 그 長 四·二m 幅 三·八m 厚 八五cm 足石은 二個인데 하나는 너머져 있고 하나는 埋沒되었다. 坐向은 一號보다 約 三十度 西쪽으로 기울어졌고 足石狀態는 不明하다. 또 一號같이 雜石들이 足石部分에 많이 積重되어 있다. 三號는 大略 長方形狀 蓋石으로 長 二·五m 幅 一·三m 厚 六五cm이며 足石은 埋沒되어 그 殘部 若干만 露出되어 있어서 그 狀態를 알 수 없다. 이 亦是 雜石이 散在해 있었다. 이 所在地는 漢江 上流인 京安川 畔인 點으로 보아 漢江 流域 支石墓群에 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附記해 들 것은 解放後 廣州 中學校에서 이 支石墓附近에서 磨製石 鏃를 採集 保管하고 있다고 하는 데 支石墓內에서 發見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龍仁郡엔 이 以外에 駒城面 上下里(上下支石里)에도 一基의 北方式 支石墓가 있으며 ③ 또 龍仁面 金良場里에도 있다고 한다. ④ 또 器與面 書院里에도 있다. ⑤ 慕賢國民學校의 支石墓에 硯石 鏃가 採集되었다. ⑥

註 ①, ⑤, ⑥ 金元龍 編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參照

② 當時 廣川 中學校 教師였던 姜正熙氏 談

③ 全吉姬 『龍仁郡 駒城面 所在 Dolmen 調査報告』

④ 岡田 『京城府史』(上卷) P. 二五 參照

安城 石南寺 銅鐘

李 永 樂

京畿道 安城郡 瑞雲面 石南寺 大雄殿에 萬曆八年(宣祖十三年 一五八〇年) 銘 梵鐘一口가 있다. 頂上部에는 如意珠를 문 雙龍이 잇바귀어 雙

頭單身形의 龍鈕을 이루고 左右側에는 鑄造에 起因한 隋圓形(偶八方形)의 突部가 달려 있으나 右側은 缺아낸 듯하다. 立狀蓮花紋이 鐘肩帶上

에 돌려 있으나 一部 破損되었고 肩帶에는 唐草花葉文을 돌렸다. 肩帶

에 붙여서 乳廓을 四區로 나누고 各 九個씩의 花瓣形鐘乳를 配置하였으

며 乳廓 周緣에는 蓮珠文內에 花葉文을 새겼다. 鐘身에는 削髮形坐像二

軀와 銘文을 二處에 새겼으며 鐘復에는 四條의 大線을 돌렸다. 高麗 梵

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肩帶上의 立狀蓮花文樣式이 壬亂直前의 이 鐘에

서 指摘됨은 注目할

만하다. 鐘乳의 突

起는 退化하였고 鐘

身에 새겨진 坐像二

軀中其一은 길게 뻗

친 錫杖을 右手에 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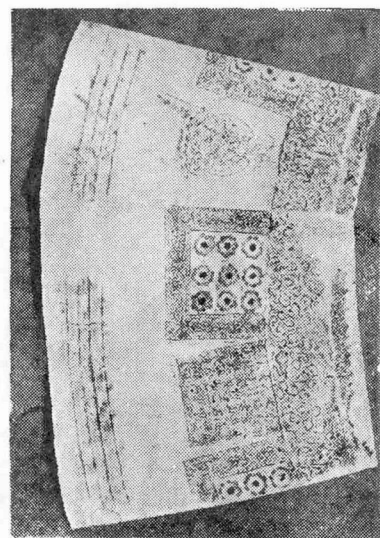
었고 左手에는 念珠

를 들었으며 他一은

右手에 寶瓶, 左手에

는 念珠를 들고 있

는데 法衣의 彫線은



流麗하며 簡略한 蓮花座에 앉아 있다. 甬筒과 撞座下帶가 없는 點은 中葉에 가까워지는 李朝鍾의 退化經路를 表示하고 있다.

(銘文) 萬曆八年庚辰九 月日京畿道安城 地瑞雲山石南寺

大鍾鑄重二百斤 大施主列成必兩主 大施主貴今保體

大施主長慶兩主

(總高 七六cm、上徑 三六cm、口徑 五六cm 口徑厚 三·三cm)

安城郡의 石塔(二)

申 榮 勳

(5) 道基洞 三層石塔 總高一四·五尺

洞里入口 左側 동산위에 있다. 六枚의 地臺石上에 七尺이나 되는 높은 二重基壇을 갖었고 塔身은 거칠게 다듬은 屋身과 屋蓋石이 각각 一石으로 조금씩 줄어졌는데 三層塔身만은 重疊하는 二石으로 되었다. 隅柱는 基壇에만 있고 蓋石은 平均値高 〇·三三尺의 平板石 一枚로 만들었다.



下層基壇과 初層塔身의 蓋石에 副緣이 있는 外에 別다른 平口 蓋石이 없다.

露盤은 塔身과 같은 手法이나 上面에 深 〇·六尺의 擦柱孔을 갖었다. 高峻한 劣作 麗末作인 듯 하다.

(6) 七長寺 三層石塔 現高約六·五尺

圓通殿前 九尺許 石壇上에 位置한 이 塔은 破塔에 가까우나 樣式으로 미루어 慧昭國師碑(螭首 龜跌遺存)와 同代의 것으로 推定된다.

(碑는 高麗文宗十四年建立 青寧六年一〇六〇)

(7) 石南寺 五層雙塔 (東塔 高約七·九尺 西塔 高約七·六尺)

大雄殿 石壇前에 細長한 五層塔이 서로 接작을 바꾸어 놓인 채 위태롭게 서 있다. 西塔의 地臺石과 東塔의 一層屋蓋가 또 西塔 東塔의 四層屋蓋가 서로 바뀌어졌다. 兩塔이 모두 塔身 上下에 일단 작은 턱을 만들어 蓋石의 받침과 連結되도록 하였다. 屋蓋받침 三級 塔身엔 隅柱 西塔 一層 塔身에는 南側에 方形龕室을 갖다. 各各 覆鉢과 그 위에 相輪의 破片을 세워 놓고 있다. 塔系는 和順郡多塔峯의 그것들과 酷似하다. 十三世紀頃作品

(8) 靑龍寺 三層石塔 總高六·二尺(寫眞)

大雄殿前에 놓인 이 塔은 下層基壇이 半沒되어 있는데 上層基壇은 中央에 撐柱가 하나 섰고 隅柱가 있으며 內曲한 副緣이 달린 甲石으로 構成되었다. 基壇身받침과 初層塔身의 받침에는 물이 있다. 隅柱、蓋石받침은 四級 落水面은 얇고 轉角은 날카롭다. 三層蓋石 上部에는 徑二寸의 擦柱孔이 있고 그 위의 圓形物은 寶珠로 推定된다. 大雄殿側으로 面한 部分에 破損이 尤甚한데 壬亂때 被害라고 한다. 大雄殿의 石壇과 同代인 듯 보여지고 位置도 原狀인 듯 한데 同寺는 高麗元宗六年(一一六五)에 敕建되었다고(寺蹟記) 傳하지만 統一期の 退化된 樣式으로 보아 年代가 溯上되는 作品으로 推定된다.

(9) 淸源寺 大雄殿前 七層石塔 總高二七·五尺

玄化寺 七重石塔과 塔身의 手法을 같이 하고 있으나 보다 細長하고 峭峭하다. 五層과 六層의 塔身은 바깥고 隅柱는 太線으로 陰刻하여 塔身과 區別하고 있다. 七層屋蓋石은 合闔지붕을 하였고 그 위에 寶珠一個를 얹었다. 屋蓋받침은 二級 十四世紀頃의 作品인 듯 하다. 塔과 同時代의 銀入絲香爐가 있었는데 一九一五年頃 盜去되었다고 한다.

(10) 同寺 大雄殿 側三層石塔 現高五·一尺

同寺 後面 山麓 原寺址에서 移建하였다는 이 破塔은 本來의 모습을 찾